

과학기술강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

강 철 호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펼친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앞에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들을 하루빨리 점령하여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정표를 갖추었을 때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과학기술강국은 오늘 우리 인민앞에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강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오늘 우리가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8페이지)

과학기술강국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이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목표는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는데있다.

오늘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는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발전하고있으며 과학기술발전이 없이는 나라의 끊임없는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강해지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국력이 약화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현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나라의 종합적국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며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목표를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강국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나라의 종합적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과학기술력이기때문이다.

나라의 종합적국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해당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발휘되는 힘의 총체이다. 사회발전에서 매 분야들의 발전은 자기의 고유한 측면을 가지고있지만 공통적인것은 과학기술에 토대하고있다는것이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부문의 발전을 추동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와 높이에 의하여 사회전반의 발전속도와 높이가 규정되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지난 시기에는 로력자원과 물질자원이 사회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간주되어왔으며 과학기술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기

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국력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되고있다.

과학기술력은 사회경제발전에서 발휘되는 과학기술의 힘으로서 여기에는 나라의 과학기술력량과 그에 의하여 창조되는 지식자원, 그것이 축적된 물질기술적수단들이 포함된다. 과학기술력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과 역할, 과학기술관리체계, 과학기술발전투자 등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오늘 사회발전과 문명을 이룩하는데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비상이 커지고있다. 경제분야만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인공지구위성을 리용한 자원탐사기술에 의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알수 없었던 땅속비밀이 밝혀짐으로써 각종 지하자원매장지들이 늘어나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고있다. 유전자에 대한 해명과 그 조작기술의 발전은 수확성이 높고 여러가지 병이나 가물건달성이 강한 새로운 품종들을 육종해냄으로써 농업생산을 안전한 토대우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갈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이와 함께 석탄이나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대신 태양빛과 바람, 지열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새 에네르기기술도 발전하면서 깨끗하고 무진장한 에네르기자원도 확보할수 있게 되었다.

첨단과학기술의 성과가 인간생활에 광범하게 도입되고있는 현실은 과학기술력이 물질적부의 창조와 생산력발전, 인류의 문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과학기술력은 오늘뿐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되고있다.

자연자원은 리용과정에 점차 고갈된다. 지난 시기 장기간에 걸쳐 자연자원을 개발리용한 결과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자원이 점점 고갈됨으로써 오늘날에 와서 세계는 자원위기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고있다. 한편 자연자원의 대량적인 소비로 하여 온실효과가스배출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문제가 국가들의 장래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러한 자원위기와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전망을 열어주는 관건적고리로 되는것이 바로 과학기술력, 지식자원이다.

지식자원은 소모되는 일시적인 자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수명이 끝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원과는 달리 인류가 항구적으로 쓸수 있는 영원한 자원이며 쓰면 쓸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자원이다. 지식자원의 급격한 증대로 지난날 버림받던 폐설물이나 폐기품의 회수리용기술과 재생가능한 자원리용기술이 개발되어 인간이 리용할수 있는 자원의 량이 늘어나고 이전에는 리용가치가 적은것으로 하여 관심밖에 있던 자원이 긴요한 자원으로 되고있으며 과학기술에 의거한 환경보호산업이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높아지고있다.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에는 해당 나라의 자연부원이나 로력자원도 과학기술력에 토대하여야만 보다 실리있고 광범하게 리용될수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과학기술발전계획과 전략, 인재중시전략실현에 힘을 넣는것은 이와 관련된다.

현대과학기술의 안받침이 없이는 그 어느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고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문화적생활을 누릴수 없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자연히 사회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뒤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권을 철저히 지킬수 없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과학기술강국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것이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선결조건으로 되며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고수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것은 우선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세우는데 있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은 경제강국건설의 선결조건이다.

경제강국을 빠른 시일안에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하고 큼직큼직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는 문제도,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적인 기술로 개선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도 다름아닌 과학기술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기본은 생산력발전이며 그것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사람과 생산수단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사람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로서 생산력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며 높은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무장할 때 자기의 역할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다. 그리고 생산력의 구성요소인 생산수단 역시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야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높아지며 보다 현대적인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그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기본과업인 원료, 연료를 우리 식으로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인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와 공장, 기업소들의 무인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기술적도태우에 올려세워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강국건설은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한 자강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나라의 기술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개진하며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등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서만 실현되어나갈수 있는것으로 하여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선결조건으로 된다.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것은 문명강국건설의 선결조건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고 향유하는 나라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는 사회주의문화의 발전을 추동할수 없으며 문명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켜나가자면 과학기술의 힘이 안받침되어야 한

다.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문화,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보장된 문화는 과학기술의 성과에 토대한 정신적재부 및 물질적조건이 보장될 때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민들의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담보해준다.

문명강국은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닌 전면적으로 발전된 힘있는 존재로 될 때 실현되게 된다.

인민들이 지닌 창조력에서 기본은 과학기술력이다. 과학기술지식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인민들의 창조력의 발휘수준이 규정되게 된다.

인민들의 문화수준은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발전된 과학기술에 의거한 문화생활수단들이 보장될 때 인민들의 문화수준은 더욱더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된다.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여 첨단과학기술이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극 구현되어야 문명강국건설도 원만히 진행될수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하여야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도 원만히 진행해나갈수 있는것으로 하여 과학기술강국건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된다.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것은 또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시대의 발전추세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 군사적위력을 확고히 고수하고 더욱더 강화해나갈수 있다.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여야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도 튼튼히 다질수 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는데서 과학기술을 주되는 전략무기로 삼고있다.

과학기술은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인류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류를 참화속에 몰아넣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수 없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담보할수 없다.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야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도용한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를 막고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 일심단결을 더욱 철옹성같이 다져나갈수 있다.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여야 군사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군사력은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통성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국방과학기술발전이다.

군사력에서 기본을 이루는 군인들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중요한것은 군인들의 군사과학지식과 전투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사상적준비를 갖추고있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고도로 현대화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고 립체전이 벌어지는 현대전에 대처하자면 모든 군인들이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국방과학을 중시하고 빨리 발전시켜야만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자체의 민족국방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켜 세계적

추세에 맞게 무장장비와 전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높은 과학기술력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국방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켜 국방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에 맞는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가지지 않고서는 외부세력의 지배와 략탈을 면할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지켜낼수 없다.

현대적무장력은 가장 과학적인 군사전법과 결합될 때 최대의 위력을 낼수 있다. 과학적인 군사전법은 현대전에 대한 높은 군사기술지식과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기초하여 세워지게 되며 이것은 첨단정보기술수단들에 의하여 안받침된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여 높은 과학기술력을 가져야 나라의 군사력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는것으로 하여 과학기술강국건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된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양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과학기술강국건설사상이 있고 우리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튼튼히 준비된 과학자, 기술자대군과 위력한 과학기술적잠재력이 있는 한 과학기술강국건설위업은 가장 옳바른 길을 따라 가장 빠른 기간안에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날을 더욱더 앞당겨오게 될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과학기술강국, 과학기술력